

Analysts 이가근 | 3777-8226 | kakeunlee@kbsec.co.kr

김상표 | 3777-8501 | spkim@kbsec.co.kr

한동희 | 3777-8095 | donghee.han@kbsec.co.kr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의 의미와 전망

- ◆ 삼성전자, 전사조직에 '전장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 선언
- ◆ '전장사업팀'을 DS부문 산하에 포함시킨 점은 차량용 반도체와 스마트카를 겨냥한 포석
- ◆ 삼성그룹 내 IT 기업들과의 사업 확대 및 완성 스마트카 사업 진출 여부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 삼성전자의 전장부품 라인업이 확대될 경우 삼성SDI와 삼성전기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

▶ DS부문 아래 새롭게 신설된 전장사업팀

- 삼성전자가 전사조직에 '전장사업팀'을 신설하고 자동차 전장사업에 진출할 것임을 밝혔다. 전장사업팀은 권오현 부사장 직속으로 DS부문 산하에 편입되며, 총 책임은 박종환 부사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스마트카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DS부문 산하에 넣은 전장사업팀, 최종목표는 차량용 반도체와 스마트카

- 전장사업팀 신설은 최근 IT업황을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다. 다만, 전장사업팀의 초기 시장 목표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CE 산하 VD 총괄이 아닌 DS부문 아래에 놓였다는 점은 향후 삼성전자가 단순히 전장 부품이 아닌 ECU, TCU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부문으로의 사업 확대와 더불어 구글, 애플이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카로의 사업 확대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카의 경우 모터를 포함해 배터리, 각종 센서류, 즉 반도체 관련 제품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DS부문 산하에 두고, 시스템반도체 및 DRAM, NAND와의 종합 집적형 차량용 반도체 개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 삼성그룹 IT기업들과의 사업 확대 및 완성 스마트카로의 진출 여부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삼성전자의 이번 전장사업팀 신설은 향후에 두가지 큰 이슈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삼성그룹 내 다른 전장, 전기차 관련기업들과의 사업 집적화 이슈이다. 삼성전기의 각종 센서류 및 자동차용 MLCC 등은 향후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이 사업확대 시 자동차 기업들을 상대로 원샷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아이템들이기 때문이다. 삼성SDI의 배터리는 전기차 및 스마트카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빠져 있는 본격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장,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둘째, 삼성그룹의 완성차 사업 재진입 여부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카의 경우 현재 스마트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글, 애플이라는 점, 이 스마트카 업체들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분명 다르다는 점, 특히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 파트너 및 경쟁자였다는 점 때문에 이번 이벤트로 인해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삼성전자가 부품과 세트를 함께 가져간다는 점이 고객 확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되새겨 보면 완성차로의 진출 가능성은 낮으나, 또 한편 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을 포기하기에도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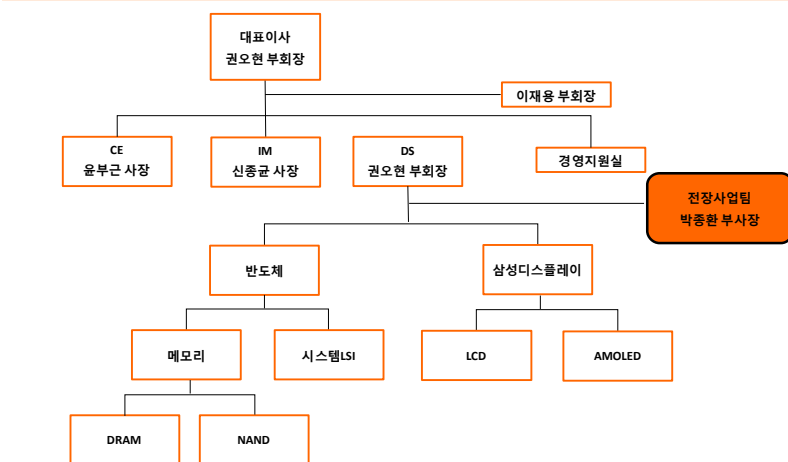
▶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진출이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 – 삼성SDI

- 삼성SDI는 주력 Cash Cow였던 케미칼 사업부를 분사해서 2016년 2월 롯데케미칼에 지분 90%를 매각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AMOLED용 전자재료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순도 높은 2차전지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SDI는 이미 양극활물질 내재화 비중 확대를 위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삼성정밀화학으로부터 양수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마그나로부터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을 인수하였다. 삼성SDI는 케미칼 부문 매각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대부분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3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212억 달러에서 2020년 630억 달러 규모로 CAGR 24.3%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중국 시안과 울산 신규 라인 가동으로 삼성SDI 전기차 부문의 매출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SDI의 중대형 2차전지 매출액 규모는 5,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현재 30여개에 달하는 중대형 2차전지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벤츠, BMW, 아우디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장부품 사업 진출로 인해 삼성전자의 전장부품 라인업이 확대될 경우 전기차 제조원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대형 2차전지 매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체형 슬림 디자인의 스마트폰 비중이 확대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폴리머 배터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소형 2차전지 부문의 실적 개선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삼성전자의 전장부품 사업 진출로 인해 친환경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에 인한 중대형 2차전지의 매출 성장세와 적자폭 축소가 기업 가치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진출이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 – 삼성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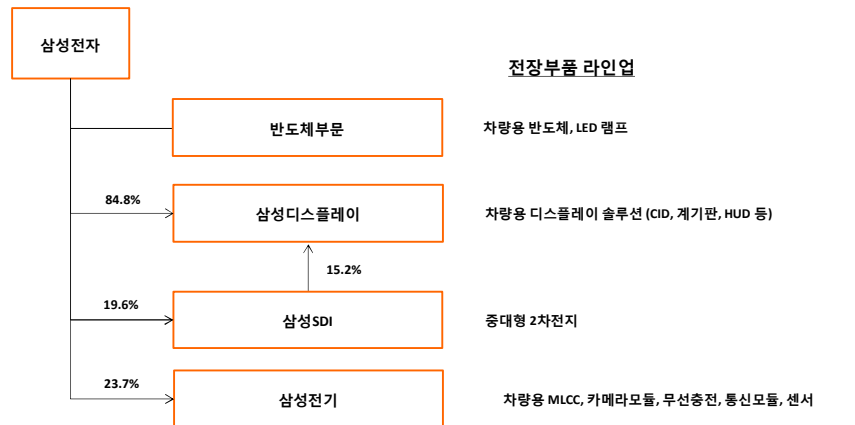
- 삼성전기는 IT기반의 전장부품 업체 중 매출액 및 수주 규모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LG이노텍과 유사한 사업포트폴리오(카메라모듈, PCB, 무선통신 모듈, 무선충전 모듈 등)를 보유하고 있다. 3분기까지 HDD모터, 파워모듈, 튜너, ESL 등 비주력 제품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되었으며, 베트남 법인 중심으로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장부품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 부진이 지속되던 2014년 12월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한 후 전장부품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 이미 차량용 후방 카메라모듈 생산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Murata, TDK가 과점하고 있는 차량용 MLCC 시장에 대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2015년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모듈 시장의 규모는 4조원, 차량용 MLCC 시장의 규모는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차량 1대당 카메라모듈 장착 대수 증가 및 차량용 MLCC 소요량 증가로 인해 향후 시장 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차량용 무선충전 및 무선통신 모듈, 센서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자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전장부품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부품 사업에 대한 진입 시기가 경쟁사 대비 늦은데다 현재 전장부품 매출액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에 매출액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삼성전자 조직도



자료: 삼성전자, KB투자증권

그림 2. 삼성전자 및 주요 계열사 전장부품 라인업



자료: 삼성전자, KB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발간일 현재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